

2014년 8월 8일 금요일 자체 선생님 영상 말씀

(예수님사진. 선생님께서는 밝은곤색 양복을 입으시고 분홍색 야자수넥타이를 하셨습니다. 앞에는 노란색 들꽃이 있고 뒤에는 대둔산 기암절벽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보고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해서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한 마리로 했죠.
이와 같이 그러하다. 이러면 이렇게 토를 안 붙이고 하신 말씀을 풀어야한단말여. 공자말씀이 어렵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토를 안 달고 설명없이 핵심만 말해서 그것을 풀어야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면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 그 나라에 전설이 흘렀어요.
옛날에 임금이 분명히 임금이 능히 있지 않느냐. 임금이 감추어놓은 보물이 있다 그런 전설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려? 어디다 묻었는지 알수 없잖아. 지금도 옛날에 사람들이 보물을 찾다가 묻어놓았다.
남을 줄수 없으니까. 그리고 뭘 어떻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찾느라고 야단들이예요. 여기 대둔산에서도 옛날 해방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 있었잖아. 대둔산도 은행을 털어다가 돈을 쓰고 금덩이를 몰고 들어갔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대전 은행을 털고. 6.25때 금덩이를 들고 대둔산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금덩이를 갖고 갈수 없으니까 거기에다 묻어버렸다. 거기 전쟁하다가 다 죽어서 분명히 어느 골짜엔가 묻어있다는 전설이 있어요.그것을 찾느라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는데 없다더라구. 이와 같이 전설이 흐릅니다.
옛날에 오래되면 전설같이 실제인데 전설같이 내려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오래되면 전설같이 내려와요.
성경의 역사도 예덴동산의 역사도 전설같은 얘기네. 노아때 홍수심판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전설같은 얘기네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잘 들어보고 사람들이 옛날에 동네에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물이 뜨거워서 모가 다 죽고 밭 곡식도 죽었대. 신이 저주한 것이지. 뭐. 그것을 두고 지금 사람들은 바닥이 뜨거우면 온천이 있는가 지금 사람들은 온천이 있는가 발견을 해서 온천을 발견해요. 유성도 한국에 유성온천도 다 그렇습니다. 전주에 온천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구. 거기를 봤는데 결국은 장소를 못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구. 거기에도 옛날에 농부가 모를 심었는데 몇 마지기가 자꾸 죽더라구. 그러니까 파보니까 온천이 없다구. 오래 되었어요. 7-8년이 되었어요.
너도 거기 하나니까 한 대요. 그러면 지도를 갖고 와서 선생님이 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천이 나왔잖아. 거기 전주에 무슨 대학교에 옆에 있어요. 이와 같이 전설같지만 실제 있었던 얘기에요. 오래 된 것은 전설같이 들린다.

전설 많이 있잖아요. 전설에 주인이 되라는 말도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면 밭을 깊이 파보아야죠.

그 사람들이 거죽에다 감출수 없고 깊이 감추었을꺼아녀. 금도 그래요. 큰 금은 땅속에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은 밖에 없고 땅에 있습니다. 보이는 돌은 크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돌이 큼니다.

지구상에 돌은 다 한 형제예요. 지구에 표면 거죽은 돌이 다 떨어져있지만 안에는 다 한 덩어리입니다.

이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면 첫째는 운을 타야해. 모두가 큰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째는 운을 타야해. 보화를 발견하려면 첫 번째 하늘의 운을 타야된다. 운을 안 타면 해당이 안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해야해. 운을 탄 사람도 일을 안 하면 자기 것이 안됩니다. 운을 탔어도 일을 함으로 어떤것을 얻게 하셨다.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아. 우리 섭리사는 구원을 다 얻게 하십니다.

다만 구원이 천층 만층이 있을 뿐이지. 구원의 혜택을 다 줍니다. 누구든지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주리라.

그 구원이 수고함에 따라 연구함에 따라 자기 구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쓰고 열심히 한 사람 더 얻게 되고, 세상에서도 더 많이 애를 쓴 사람이 더 배워서 써먹잖아. 운을 탔어도 일을 해야 그 보화를 발견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하늘의 운을 탔을것이 아니냐. 하늘의 운을 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일을 하다가 시골말로 쟁기라고 해요. 기계로 갈잖아. 그것이 톱 바치니까 걸리니까 그것을 파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보아야 그것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 자기 보화를 발견하자.

어제는 섭리의 보화를 발견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갈게요. 일 주일 동안 설교를 많이 해서 자기 것을 발견하게 해주니까. 자기 보화를 발견해야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중심한 보화들이예요. 신앙을 중심한 믿음 사랑도 보화이고 사람도 보화 깨닫고 보니 성지 땅도 보화, 보화가 각각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고 귀히 못 느껴요.

보화. 일을 해야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보화를 발견합니다. 선생님은 일체질 선머슴 체질입니다.

시골에서 일하는 선머슴 체질이라서 일을 하면 재미있어서 파문혀요. 일을 해야 보화를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고 일을 해야 발견해요. 보화는 크고 작고 많아요.

돈으로 본다면 10원짜리 보화, 1000원짜리 보화 10억짜리 보화. 그렇게 많아요. 또 명예로 본다면 반장보화, 6가구를 지도하는 반장. 그리고 높은 직은 대통령. 보화의 그 권세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큼니다.

이번주 말씀을 듣고 보화를 발견하고 캐자. 남의 보화도 있지만 자기 보화를 발견하자. 딴 사람이 캐가면 나는 없잖아. 이게 아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보화를 발견하라. 남 보화를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자기 보화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해. 일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된대요. 어디 있든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보화를 발견하는데 일을 하는거야. 다른 사람도 그 밭을 갈았어요.

다른 일꾼도 갈았는데 왜 못 발견했는고 하니 거기서 연구를 해보니 깊이 안 갈았어요.

그런데 밭을 간 돌쇠는 선생님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은 더 깊이 밭을 갈았어요.

연구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 갈았으면 15cm를 갈았으면 돌쇠는 20cm를 갈은거여. 그래서 돌쇠는 받친거여.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니까 25cm로 갈은 사람이 있는데 못 발견했어요. 그것은 돌덩이로 보고 또 하나는 깊이 갈았는데 돌쇠는 돌이 있는데 쟁기로 갈다가 바치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갔는데 돌쇠는 받치는 돌바다 다 캐주었어요.

밭에 쟁기가 다니까. 캐주다니 그것을 발견한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주고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등으로 갔는데 선생님은 그 일을 깊이 보고 고쳐주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건등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때 깊이 하고 완벽히 완전히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일을 할때 완벽하게 하라. 신앙도 완벽하게 해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 들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법적문제도 완벽하게 해야 해결한다. 모두 완벽하게 하라.

모두 신앙문제도 완벽하게 해야 사탄이 안 끌고 갑니다. 신앙도 완벽하게 하면 돼요. 신앙도 아예 손을 못대게 해야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도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해서 너 부모말을 들으면 망한다.

나도 우리 어머니 말을 그 때 들었으면 망한다고. 왜냐하면 부모가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 달라.

시대 차이가 있어. 부모시키는데로 하지 말라, 밥을 먹으라고 해도 나는 망했고 잠을 자라고 해도 나는 망했다.

왜냐하면 기도하느라고. 한번 어떤 것을 하기까지는 결심을 부리고 가야하니까. 매일 잠을 자라고 했는데 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뜻 목숨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너도 그런 입장으로 하라.

부모는 낮고 그러니 본인들이 다 컸으니 모두 해야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하면 잘 되고 형통하리라. 알겠어요? 한국의 부모들은 지나치게 간섭하고 무지하게 간섭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안 나와요. 방안 통소만 되는거여.

그래놓고 네 맘대로 나중에 나이먹어서 그래요. 내가 안 듣고 부모말을 안 듣고하길 잘했지.

날보고 고집쟁이라고 했는데 나는 세계적인 사상가여. 정신을 살려야되니까. 교회에서 목사

말도 안들었어요.

벌써 틀려서 안들었어요. 틀리면 안 듣는거여. 이와 같이 그래서 부모는 원죄 자범죄 다 있잖아. 유전죄.

다 흘러서 오잖아. 주관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쪼개놓고 섭리를 하시지. 그 다음에 운을 타고 일을 하고 선생님은 보화를 발견해서 알잖아. 발을 갈되 깊이 갈고 돌이 있으면 다 빼내어 버렸어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고 남의 일을 내 일 같이 하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1년 2년 시간을 전부 다 투자하고 물질을 다 투자하고 10의 10조 드리면서 역사를 펴왔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그쪽으로 다 일을 한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나 들어보라구 하잖아.

그전에 교회다니때 사람들은 다 늙었어요. 얼마전에도 월명동에 왔다고 화면에 비추더라구. 그때 초등학교 선생이 있는데 혹은 교장도 했는데 잇그제 화면에 비춰보니까 나이 먹어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구. 그 때 조그만해서 청년때 뛰어돌아다니며 운동도 하고 그 집에 가서 국수도 썰아먹고 그랬어요.

석막초등학교 옆에 사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후에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니까 몰라요. 나이 먹으면 그래. 그 때 그 때 어렸을때 전도지 줘어지고 다니면서 그랬다는 얘기 하나도 안해.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인사나 하고 끝나. 애인이니까 툭 건들면서 인사나 하고 끝나. 그랬어요. 이와 같이 어렸을때 사상이 달랐어요. 주관도 다르고. 나는 발견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그것을 전문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내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밭을 열심히 사고 그냥 캐가면 안되잖아.

그러면 밭에 가서 캐면 자기 것이 되죠. 간단하잖아. 그런데 그 보화가 하도 커서 박물관에 진열을 해야하고 세상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하냐면 그 주인이 어느 때 캐왔냐 조사하고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냐 있을수 없으니 밭을 사야지.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밭을 사라.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개발하듯이 보화를 세공해서 반지 목걸이 만들고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명해지죠.

혹은 100배 1000배 금을 세공해서 반지 만들고 다이아 박으면 엄청 비쌉니다. 그냥 팔면 금이 얼마 안 비싸요.

이와 같이 만들어서 써라. 섭리 사람들도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집에서 지천거리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집에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지천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셨어요. 지구상에 보화를. 하나님이 나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지구촌에 다이아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나도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귀한 자인지를 깨달았어요.나는 목사님들이 귀하고 영웅이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내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예수님이 귀한 것을 깨닫고 인간중에서는 내가 귀한 것

을 깨달았어요. 나를 개발했어.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세공을 해야해요.

그래서 멋있는 반지 멋있는 왕관을 만들었으니까 나같이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기뻐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온전한 진리를. 성경읽다가 또 문학을 발견해서 시 문학을 발견해서 시를 쓰고 잠언 묵시를 발견하고 그래서 잠언을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되고 이 후에 내가 못하면 할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은 우리 시대 상황을 쓴거여.

구원론이나 이런 것도 성경이 아닙니까. 가르침.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최종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역시 동방나라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설같은 얘기인데 어느 위치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후에 구체적으로 더 깨닫고 알게 되니까 땅에서 사람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네가 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사람에게 해보라고 하고 일단 해봐라. 일단 시킵니다. 잘 막진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해보겠다고 하면 해보라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동방에 독수를 보낸다 뜻을 깨닫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발견해봐요. 발견해야된다. 여러분들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봐요.

깨eke는 것이 보화이고 행동하는 것이 보화여. 금주에 한번 깨닫고 실천하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찾아서 은밀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돼요.

이런 것이 오늘 새벽에 하는 말씀이에요. 많이 하면 다 잊어버려요. 밭에 감추인 보화. 계속 말씀을 할 것입니다. 보화는 사람도 보화 물질도 보화 환경도 보화 깨달음도 보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깨달았어.

깊이 깨달으려 할때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발견했을때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얻고 멋있게 개발해서 빛나게 만들고 금줄을 발견했어요. 금맥을 발견해서 첫 번째 금줄에서 금이 나잖아. 두 번째 금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은밀하게 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고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느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샀느니라.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샀느니라. 발견하면 맘껏 목숨을 다해서 다 해야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남기고 소는 남기고 그게 아니라 다 팔아야 그것을 살수 있으니까. 마음뜻목숨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하지 않으면 그 보화를 못 만들어요. 자기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해서 가서 기뻐하고 옆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동네 밭을 사고서 소를 팔다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녁식 큰 일이 났구먼.사업을 하다가 망하겠다.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밭을 붙였는데 나도 밭 하나 사려고 샀다고. 아니 이 사람아 그런 밭을 사서 뭘 하려고 그래.

그 밭은 다 해서 진기가 빠지고 쓸모도 없어. 사람들이 모르지. 보화를 발견한지.

집에서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시대의 발견한 지를 모릅니다. 이미 역사는 25년 전에 성약역사가 시작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역사는 가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모시고 가면 끝납니다. 따라오는 사람만 갖고 역사를 펴는 것이라고 했어요. 몇 명 따라와도 신약에 역사 펴듯이 역사의 주인공만 오면 역사를 펴고 가요.

안 따라오면 비웃으면서 간다니까. 아무리 30년 전에 선생님 그 때 알았어요. 역사를 알았으니까. 초등학교때부터 부활론을 깨닫고 움직였으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 아버지에게 혼났어요. 10대에 알았어요.

말할때에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일찍 깨달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들은 오래 되었잖아.

25년 되었어요. 섭리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말씀 받고서 이미 종교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무지를 깨닫고 개탄했어요. 지금도 가봐야된다. 그러나 난 30년 전에 벌써 그게 아녀.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오신다. 예수님이 30년 전부터 그렇게 안오신다고 했잖아.

살았으면 오시는데 죽어서 안오신다고 했잖아. 쉬운말로 머리가 멍청한 사람은 간단하게 가르쳐야돼요.

예수님이 살았으면 오는데 죽어서 오고 싶어도 못온다고 했죠. 그러나 구원론에는 잘 가르쳐주었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듯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다만 신이라는 것은 정치이념이 좋아서 정치의 신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가고 있다.

진행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이 보면 재보아야 알지. 선생님 앞에서 으스스대면 선생님이 속으로 비웃어요

예수님도 비웃고. 야! 재 말 듣지도 말고 내 말만 들어. 지구촌에 중간도 못 가면서 그 많은 사람중에.

이와 같이 늘 옆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되어서 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진리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보화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보화이다. 세상에 감추인 보화이다. 자기를 천국만 들고 자기를 하나님 사람 신부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금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되겠어요.

자기도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근본으로 깨닫고.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닫고 자꾸 깨달으려 해야 깨달아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요. 각각 생활의 보화를 발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서 깨닫도록 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잖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선생님의 음성을 많이 듣잖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새벽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그 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금주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생활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세공해서 비싼 일을 남길수 있습니다.

메시야나 선지자는 정식으로 통해서 사야합니다. 그냥은 안됩니다. 정식으로 거쳐서 무엇이든지 해야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그냥 캐면 결국은 너무 엄청나니까 소문이 난단말여. 사람들이 알고 이 분에게 역사가 보화가 돌아갔구나 정식으로 샀구먼. 내 밭이 되어서 깊이 갈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고. 비밀을 지킬줄 알아야 보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내일 새벽에 또 나타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했으니 모두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화를 여기있다 캐리라 하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캐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 운을 먼저 딸 것. 하나님의 운을 먼저 따야 그래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거여. 그리고 일을 해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을 했으면 반드시 자기 것으로 사고 그리고 반드시 세공해서 쓸 것 그냥 쓰면 값이 없어. 이와 같이 모든 이치에 대해서 말씀했으니 그와 같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유명한 설교말씀으로 시대를 문학적으로 불이고 대폭적으로 천주적으로 말씀한 것이 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의로 채워주심이 크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모두 잘되고 형통할찌어다. 삼위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영원할찌어다. 아멘.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뜻이 깊고 큰 교훈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깊고 큰 충격적인 것이 있는 설교가 밭에 감추인 보화설교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의 설교도 잘 하고 진리의 설교도 잘하지만 7-8개 아주 뜨는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안녕.네. (예수님사진)